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도자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5월 25일(수) 조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4일(화) 12시]					
배포일	2022년 5월 24(화) (총 11쪽)	담당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 장 (043-880-5421)		
			김지연 조사관 (043-880-542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희재 과 장 (044-200-4418)		
			김지원 조사관 (044-200-4425)		

“ 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에 가장 많이 발생 ”

- 영아기에는 ‘추락’, 그 외 연령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아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000건 이상 접수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의 어린이 환자가 크게 줄어*,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 * 어린이 위해정보 병원 접수 건수는 '19년 대비 '21년 37.0% 감소(24,354건 → 15,343건)
 -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추락’사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달단계별로 주요 위해원인 품목*도 차이를 보였다.
 - * (영아기) 침대, (걸음마기) 바닥재, (유아기) 킥보드, (학령기) 자전거
- 소비자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정보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1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7~2021년)

-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09,13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은 15,871건으로 전년(18,494건) 대비 14.2% 감소하였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이는 종합병원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가 많은 어린이 위해정보의 특성상, 팬데믹으로 인해 어린이 환자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병원 접수 건수 '19년 대비 '21년 37.0% 감소(24,354건 → 15,343건)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25,699	24,097	24,971	18,494	15,871
전년대비 증감률	(14.0)	(△6.2)	(3.6)	(△25.9)	(△14.2)
병원 수집 건수	24,796	23,415	24,354	17,612	15,343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95% 이상이 병원에서 수집됨.

- (발달단계별) 최근 5년간 ‘걸음마기’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걸음마기’ 6,485건(40.9%), ‘학령기’ 3,867건(24.3%), ‘유아기’ 3,850건(24.3%), ‘영아기’ 1,669건(10.5%) 순이었다.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현황]

(단위: 건, (%))

단위: 천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학전	영아기 (0세)	2,340 (9.1)	1,986 (8.2)	2,167 (8.7)	1,720 (9.3)	1,669 (10.5)
	걸음마기 (1~3세)	12,186 (47.4)	11,678 (48.5)	11,485 (46.0)	7,933 (42.9)	6,485 (40.9)
	유아기 (4~6세)	5,907 (23.0)	5,586 (23.2)	5,669 (22.7)	4,438 (24.0)	3,850 (24.3)
	소계	20,433 (79.5)	19,250 (79.9)	19,331 (77.4)	14,091 (76.2)	12,004 (75.7)
학령기 (7~14세)		5,266 (20.5)	4,847 (20.1)	5,640 (22.6)	4,403 (23.8)	3,867 (24.3)
합계		25,699 (100)	24,097 (100)	24,971 (100)	18,494 (100)	15,871 (100)

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연령 증가할수록 실외에서 발생 비율 높아져

- (장소별) 최근 5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 75,201건(68.9%), '도로 및 인도' 5,799건(5.3%), '교육시설' 5,617건(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연도별로 '주택'은 매년 안전사고 발생장소의 67% 이상을 차지했으며, 2021년에도 71.1%(15,871건 중 11,286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주택'은 모든 어린이 발달단계에서 1위 발생장소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비율은 감소(89.3%→79.2%→63.7%→44.7%)하고,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등 실외장소의 비율이 증가했다.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발생장소(2017~2021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주택	8,823	(89.3)	39,427	(79.2)	16,203	(63.7)	10,748	(44.7)
도로 및 인도	125	(1.3)	1,205	(2.4)	1,556	(6.1)	2,913	(12.1)
교육시설	28	(0.3)	1,512	(3.0)	1,529	(6.0)	2,548	(10.6)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40	(0.4)	1,727	(3.5)	1,996	(7.8)	1,832	(7.6)

나. 영아기 '침대', 유아기 '킥보드' 등 발달단계별로 위해원인 품목 달라

- (위해원인별 상위 품목)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사고는 모든 어린이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추락' 사고 비중은 낮아졌다.
- '영아기'(0세)의 경우 '추락'이 53.4%(영아기 전체 9,882건 중 5,279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외 연령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1위를 차지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기'(0세)의 '추락' 사고 품목으로는 '침대'가 3,441건(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파' 500건(9.5%), '유모차' 264건(5.0%) 등의 순으로 접수되어 해당 물품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미끄러짐·넘어짐’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걸음마기’(1~3세)는 ‘목재마루재’ 2,967건(22.0%), ‘비닐바닥재’ 2,876건(21.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324건(17.2%)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 반면 ‘유아기’(4~6세)는 ‘킥보드’ 1,703건(20.4%),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257건(15.1%), ‘비닐바닥재’ 957건(11.5%) 순이었으며, ‘학령기’(7~14세)는 ‘어린이 자전거’ 2,048건(25.3%), ‘킥보드’ 993건(12.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664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걸음마기’ 이하(0~3세)의 경우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구’ 및 ‘바닥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유아기’ 이상(4~14세)에서는 실외품목이 상위를 차지했다.

[위해원인별 상위품목(소분류) 현황(2017~2021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구분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추락 53.4% (영아기 전체 9,882건 중 5,279건)	침대	미끄러짐 .넘어짐*	목재마루재	킥보드	어린이 자전거
	3,441 (65.2)		2,967 (22.0)	1,703 (20.4)	2,048 (25.3)
	소파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킥보드
	500 (9.5)		2,876 (21.3)	1,257 (15.1)	993 (12.3)
	유모차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64 (5.0)		2,324 (17.2)	957 (11.5)	664 (8.2)

* 걸음마기 27.1%(49,777건 중 13,493건) 유아기 32.8% (25,450건 중 8,349건), 학령기 33.6% (24,023건 중 8,080건)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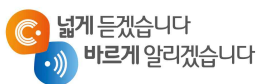
영아기	(7개월, 남) 2021년 9월 침대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후 구토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걸음마기	(만1세, 여) 2021년 12월 아파트 거실에서 넘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혀 입술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유아기	(만6세, 여) 2021년 6월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입술에 열상과 치아의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학령기	(만8세, 남) 2021년 6월 자전거를 타다 다리가 뒷바퀴 프레임에 끼인 채로 넘어져 다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어린이 안전사고의 경우 ‘걸음마기’ 이하(0~3세)는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유아기’ 이상(4~14세)부터 환경과 더불어 어린이의 행동적인 특성이 안전 사고 발생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 매트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할 것
 - ▲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것
 - ▲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는 항상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도록 지도할 것
 - ▲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어린이안전넷’을 통해 안전 콘텐츠 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안전넷(www.isafe.go.kr) :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나 위해유형, 예방정보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

- <붙임> 1.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7~2021년)
 2.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비교 분석(2017~2021년)
 3.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사항 및 예방 방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09,13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은 15,871건으로 전년(18,494건) 대비 14.2% 감소함.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종합병원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가 많은 어린이 위해정보 특성상,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 환자가 크게 감소*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됨.

* 병원 접수 건수 '19년 대비 '21년 37.0% 감소(24,354건 → 15,343건)

[연도별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25,699	24,097	24,971	18,494	15,871
전년대비 증감률	(14.0)	(△6.2)	(3.6)	(△25.9)	(△14.2)
병원 수집 건수	24,796	23,415	24,354	17,612	15,343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95% 이상이 병원에서 수집됨.

- (발달단계별) 최근 5년간 ‘걸음마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에도 ‘걸음마기’가 6,485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3,867건(24.3%), ‘유아기’ 3,850건(24.3%), ‘영아기’ 1,669건(10.5%) 순이었음.

[발달단계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학전	영아기 (0세)	2,340	(9.1)	1,986	(8.2)	2,167	(8.7)	1,720	(9.3)	1,669	(10.5)
	걸음마기 (1~3세)	12,186	(47.4)	11,678	(48.5)	11,495	(46.0)	7,933	(42.9)	6,485	(40.9)
	유아기 (4~6세)	5,907	(23.0)	5,586	(23.2)	5,669	(22.7)	4,438	(24.0)	3,850	(24.3)
	소계	20,433	(79.5)	19,250	(79.9)	19,331	(77.4)	14,091	(76.2)	12,004	(75.7)
학령기 (7~14세)		5,266	(20.5)	4,847	(20.1)	5,640	(22.6)	4,403	(23.8)	3,867	(24.3)
합계		25,699	(100.0)	24,097	(100.0)	24,971	(100.0)	18,494	(100.0)	15,871	(100.0)

- (발생장소) 최근 5년간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의 67% 이상을 차지함.

[상위 5개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건, (%))

구분(대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택	17,605 (68.5)	16,343 (67.8)	16,749 (67.1)	13,218 (71.5)	11,286 (71.1)
도로 및 인도	1,132 (4.4)	789 (3.3)	1,147 (4.6)	1,528 (8.3)	1,203 (7.6)
교육시설	1,492 (5.8)	1,474 (6.1)	1,602 (6.4)	513 (2.8)	536 (3.4)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1,395 (5.4)	1,309 (5.4)	1,500 (6.0)	788 (4.3)	603 (3.8)
숙박 및 음식점	812 (3.2)	827 (3.4)	725 (2.9)	473 (2.5)	352 (2.2)

- (품목) 최근 5년간 ‘가구 및 가구설비’,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스포츠 및 취미용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매년 유사한 추이로 나타남.
- 특히, ‘완구 및 게임용품’의 경우 2020년부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2,022건(12.7%)을 차지함.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대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구 및 가구설비	8,216 (32.0)	7,547 (31.3)	6,990 (28.0)	3,745 (20.3)	3,448 (21.7)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4,495 (17.5)	4,389 (18.2)	4,334 (17.4)	3,934 (21.3)	3,205 (20.2)
스포츠 및 취미용품	3,093 (12.0)	2,680 (11.1)	3,673 (14.7)	2,809 (15.2)	2,613 (16.5)
완구 및 게임용품	1,881 (7.3)	1,937 (8.0)	2,473 (9.9)	2,478 (13.4)	2,022 (12.7)
건물, 시설 및 서비스	2,228 (8.7)	2,026 (8.4)	1,718 (6.9)	769 (4.2)	635 (4.0)

붙임 2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비교 분석(2017~2021년)

- (발생장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등 실외장소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

[발달단계별 발생장소(2017~2021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주택	8,823	(89.3)	39,427	(79.2)	16,203	(63.7)	10,748	(44.7)
도로 및 인도	125	(1.3)	1,205	(2.4)	1,556	(6.1)	2,913	(12.1)
교육시설	28	(0.3)	1,512	(3.0)	1,529	(6.0)	2,548	(10.6)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40	(0.4)	1,727	(3.5)	1,996	(7.8)	1,832	(7.6)

- (품목) 발달단계별 1위 발생 품목을 보면 ‘영아기’는 ‘침실가구’가 37.6%, ‘걸음마기’와 ‘유아기’는 ‘바닥재’가 각각 16.5%, 12.5%, ‘학령기’는 ‘놀이터 시설’이 1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영아기’와 ‘걸음마기’는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구’, ‘바닥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유아기’와 ‘학령기’는 ‘놀이터 시설’, ‘자전거’ 등 실외품목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더욱 높았음.

[발달단계별 위해품목(중분류) 현황(2017~2021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0세)	걸음마기(1~3세)	유아기(4~6세)	학령기(7~14세)
1	침실가구 (3,712건, 37.6%)	바닥재 (8,218건, 16.5%)	바닥재 (3,175건, 12.5%)	놀이터 시설 (2,872건, 12.0%)
2	유아용 가구 (847건, 8.6%)	침실가구 (4,733건, 9.5%)	놀이터 시설 (2,579건, 10.1%)	자전거 (2,472건, 10.3%)
3	거실가구 (721건, 7.3%)	완구 (3,505건, 7.0%)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941건, 7.6%)	바닥재 (1,427건, 5.9%)
4	바닥재 (625건, 6.3%)	거실가구 (3,411건, 6.9%)	완구 (1,809건, 7.1%)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1,313건, 5.5%)
5	주방가구 (320건, 3.2%)	문 (2,818건, 5.7%)	침실가구 (1,647건, 6.5%)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155건, 4.8%)

□ (위해원인별)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사고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점차 비중이 높아졌으며, ‘추락’ 사고는 점차 낮아짐.

○ ‘부딪힘’ 사고는 걸음이 서툰 ‘걸음마기’에 19.9%로 발달단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유아기’와 ‘학령기’에 각각 18.4%, 13.0%를 차지함.

[발달단계별 위해원인 현황(2017~2021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0세)	걸음마기(1~3세)	유아기(4~6세)	학령기(7~14세)
1	추락 (5,279건, 53.4%)	미끄러짐·넘어짐 (13,493건, 27.1%)	미끄러짐·넘어짐 (8,349건, 32.8%)	미끄러짐·넘어짐 (8,080건, 33.6%)
2	부딪힘 (807건, 8.2%)	부딪힘 (9,888건, 19.9%)	부딪힘 (4,680건, 18.4%)	부딪힘 (3,130건, 13.0%)
3	미끄러짐·넘어짐 (806건, 8.2%)	추락 (9,421건, 18.9%)	추락 (4,325건, 17.0%)	추락 (2,913건, 12.1%)
4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771건, 7.8%)	이물질 삼킴/흡인 (5,035건, 10.1%)	이물질 삼킴/흡인 (2,231건, 8.8%)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2,514건, 10.5%)
5	이물질 삼킴/흡인 (535건, 5.4%)	놀림·끼임 (3,922건, 7.9%)	놀림·끼임 (1,879건, 7.4%)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1,798건, 7.5%)

□ (원인별 상위 품목) ‘영아기’(0세)의 경우 ‘추락’이 53.4%(9,882건 중 5,2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외의 연령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1위를 차지함. ‘영아기’(0세)의 ‘추락’ 사고 품목으로는 ‘침대’가 3,441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파’ 500건(9.5%), ‘유모차’ 264건(5.0%) 등의 순임.

○ ‘미끄러짐·넘어짐’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걸음마기’(1~3세)는 ‘목재마루재’ 2,967건(22.0%), ‘비닐바닥재’ 2,876건(21.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324건(17.2%)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음.

○ 반면, ‘유아기’(4~6세)는 ‘키펠드’ 1,703건(20.4%),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257건(15.1%), ‘비닐바닥재’ 957건(11.5%) 순이었으며, ‘학령기’(7~14세)는 ‘어린이 자전거’ 2,048건(25.3%), ‘키펠드’ 993건(12.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664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걸음마기’ 이전(0~3세)의 경우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구’ 및 ‘바닥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유아기’ 이상(4~14세)에서는 다양한 실외품목이 상위를 차지함.

[위해원인별 상위품목(소분류) 현황(2017~2021년)]

(단위: 건, (%))

구분	영아기 (0세)	구분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추락 53.4% (9,882건 중 5,279건)	침대	만족점 넘어짐*	목재마루재	킥보드	어린이 자전거
	3,441 (65.2)		2,967 (22.0)	1,703 (20.4)	2,048 (25.3)
	소파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킥보드
	500 (9.5)		2,876 (21.3)	1,257 (15.1)	993 (12.3)
	유모차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64 (5.0)		2,324 (17.2)	957 (11.5)	664 (8.2)

* 걸음마기 27.1%(49,777건 중 13,493건) 유아기 32.8% (25,450건 중 8,349건), 학령기 33.6% (24,023건 중 8,080건)

[참고 어린이 발달단계에 따른 분류]

구 분*		분 류
취학 전	0세**	영아기
	1세 ~ 3세	걸음마기
	4세 ~ 6세	유아기
취학 후	7세 ~ 14세	학령기

* ‘어린이’는 법령에 따라 지칭하는 연령대 및 명칭이 상이하며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 유소년 인구 기준에 맞추어 0세부터 14세를 유소년 인구로 보고 이 연령대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어린이의 연령범위 위 표와 같이 4단계로 분류함.

** 나이는 ‘만’ 기준

☐ **영아기(0세)**

- 침대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아이를 침대에 혼자 두지 말고 침대에는 안전가드, 바닥에는 완충재를 설치해 주세요.
- 유모차, 카시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띠를 채워 이용해주세요.

☐ **걸음마기(1~3세)**

-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바닥재, 매트 등을 사용해 주세요.
- 베란다, 창문 밑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갈 만한 물건을 두지 말고, 어린이들이 침대, 소파, 서랍장 등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뾰족한 가구 모서리에는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해 주세요.

☐ **유아기(4~6세)**

- 바퀴 달린 탈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는 항상 헬멧,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이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놀이터에는 항상 보호자가 함께 가고, 아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옆에서 꼭 지켜보세요.

☐ **학령기(7~14세)**

- 바퀴 달린 탈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놀이를 할 때는 편한 운동화, 바지 등을 착용하도록 해주시고, 목걸이 등 장신구는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세요.